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인조 모피제품

페이크라 함은 위조품, 모조품을 말한다. 따라서 페이크 퍼(fake fur)라고 하면 진짜 동물의 모피는 아니고 인조, 합성섬유로 만든 위조품을 말한다. 모조품이라고 하면 이미테이션(모조)으로 되어 저속하다든가 값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오늘날의 페이크 퍼에는 모피에는 없는 우수한 물성을 지닌 것이 적지 않다.

모피는 고가이고 넓고 큰 것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몇 마리의 모피를 이어 붙이게 되어 유지 관리가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페이크 퍼의 대부분은 아크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하여 편물로 만들어 천의 표면의 루프를 절단하여 모방을 만들기 때문에 편리하다. 유지관리는 비교적 손쉽고,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이크 퍼는 인조모피이기 때문에 천연모피에는 없는 빗잡이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표범이라든가 제브라(얼룩말)의 무늬(동물 무늬라고도 한다)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악어라든가 뱀가죽과 같은 무늬의 모양도 만들 수도 있다.

* 아스트라한(astrakhan) : 중근동 지방산 양(카라쿨종(種))의 태아(胎兒) 또는 새끼양의 모피.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방에서 많이 산출되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지방의 양털은 까맣고 꼬불꼬불하며 광택이 풍부하다. 모피는 값이 매우 비싸므로, 흔히 외관만 흉내낸 첨모직(添毛織 : pile직(織))의 모직물이 대응된다. 바닥 조직에는 소모사(梳毛絲)나 면사를 사용하고, 파일사에는 광택이 있는 단단한 양털실을, 미리 강하게 권축(捲縮)시켜 놓은 다음, 경파일이나 위파일의 어느 하나의 조직으로 제직한다. 이 권모(捲毛)의 고를 자르지 않은 것과 잘라서 털을 서게 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다 열처리를

하여, 부풀어 오른 고리 모양으로 권모를 보존하도록 마무리한다.

인조건의 우아한 광택과 태를 가지고 싶다는 발상에서 폴리에스터 섬유의 내추열화가 시작되었다. 견사에서 터득한 삼각 단면으로부터 원형인 합성섬유의 단면을 삼각단면으로 바꾸고 견의 광택에 근사시켰다. 이것은 견섬유의 단면 형상을 모방하였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삼각단면사(섬유)로 한 것만으로는 광택만 향상시켰을 뿐 피부촉감이나 손촉감·견명·드레이프성을 모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꼬임을 주어 강연하기도 하고 짜여진 천을 알칼리로 처리(알칼리 감량이라고 한다)하기도 하여 드레이프성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폴리에스터 조오젯 크레이프이다.

이것에 의하여 폴리에스터 섬유는 패션성이 있는 어패럴 소재로써 인정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폴리에스터 조오젯 크레이프 프린트 옷감에 의한 블라우스나 스커트에 동일한 색상 무늬의 폴리에스터 조오젯 크레이프를 사용하여 상하 한 벌의 옷으로 착용하는 등 대유행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후, 극세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열을 가하면 줄어드는 비율이 서로 다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를 섞는 기술을 콘쥬게이트 복합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다 더 견의 태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견직물이 갖는 섬세함·유연함·벌키함을 갖게 한 것이다. 섬유의 측면에 크리에이티브를 주기도 하고 섬유에 굵고 가는 편차를 부여하기도 하여 견과 같은 다양한 태와 촉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실크라이크에 대한 노력은 다른 천연섬유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점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보면 유명 가수보다도 개성이 있는 가수가 되는 일에 비견할만한 일이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아크릴·아세테이트·레이온 등의 화학섬유(화합섬

이라고도 한다)는 방사에 의하여 섬유의 형태가 된다. 방사(스피닝)라고 함은 액상의 방사원액(섬유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을 물뿌리개의 구멍과 같은 장치(nozzle, 구금)로부터 압출, 인출하여 섬유의 형태로 하는 것이다. 면섬유·양모섬유 등을 방적하여 실의 형태를 갖게 하는 것을 방적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실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누에고치로부터 필라멘트를 얻어 실로 만드는 것을 제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방사, 방적, 제사는 모두 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화학섬유의 방사방법은 옷감에서 본 느낌이라든가 촉감 등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 섬유라고 하면 섬유의 단면형상·섬유의 굵기·한 올의 섬유(모노 파이버)내의 복합(복합방사라고 한다), 하나의 노즐로부터 서로 성상이 다른 섬유를 토출하여 그들을 혼합(혼선방사라고 한다) 하는 방법 등 다종다양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방사속도라든가 구멍에서 압출된 아직 굳지 않은 선상의 원액을 연신하여 섬유의 모습으로 하고 굳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필라멘트(장섬유)로 된 것뿐인 섬유에 곧바로 신축성을 부여하는 가연가공 장치와의 연동작업은 신축성이나 벌키성을 가진 폴리에스터 가공사 직물 옷감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 방사(紡絲, spinning): 필라멘트를 얻는 조작을 방사라고 한다.

필라멘트 형성능(形性能)을 가지고 있는 물질(주로 사슬모양 고분자 물질)을 가소상 용융상태 또는 용액상태로 하여 방사구 또는 틀 구멍(구금)을 통해서 어떤 속도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어 얻는다. 화학섬유의 방사방식에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다. 또 이 방법들을 조합한 방식도 사용된다.

① 용융방사(熔融紡絲): 섬유 형성능을 지닌 중합체를 녹여 공기나 가스 속으로, 또는 적당히 냉각고화(冷却固化)시키는 액체 속으로 밀어내

는 방법인데, 나일론 · 테트론 등은 이 방식으로 만든다.

② 건식방사(乾式紡絲) : 중합체의 용액을 가열된 공기 속으로 밀어내어 용매를 제거, 고화(固化)시켜 섬유를 얻는 방법이며, 아세테이트 · 오론(Orlon) 등은 이 방식으로 만든다.

③ 습식방사 : 중합체의 용액을 응고액 속으로 밀어내어 고화해서 필라멘트를 얻는 방법이며, 비스코스 레이온 · 비닐론 등은 이 방식으로 만든다.